

# 돼지경기 보합세 추석후 하락



정 호 풍  
(본회 지도부장)

## 1. 머릿말

백마는 가자 울고 날은 저문다는 옛 유행가 가사가 생각난다. 7,8월 호조를 보이고 신나게 달려가려 하는데, 그래서 사료대·약품대도 값아야 하는데 경기 안정책이다, 상한선 초과다 하여 그 간도 수없이 경제대책 회의에 참석했고 그때마다 조금만 있으면 내린다고 주장했던 것이나 경제기획원 물가당국은 수입을 단행하여 추석물가 잡기에만 급급한 움직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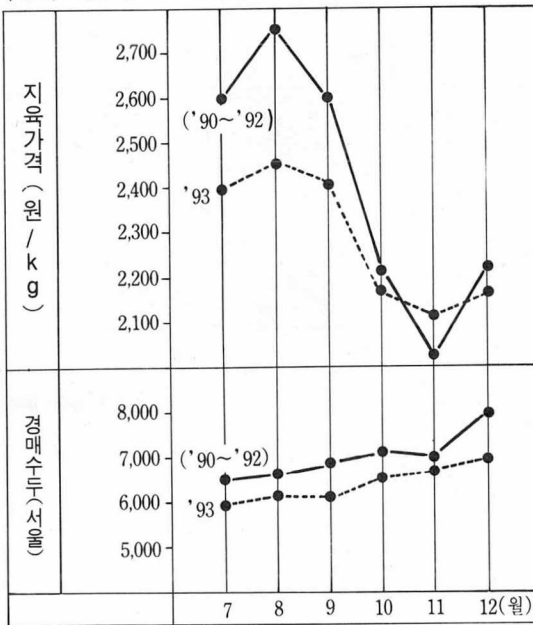
8월 25일 시세를 봐서 상한선(14만 5천원)이 넘으면 수입한다 하여 전국 지부에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해보았으나 매물이 많지 않은 눈치다. 하한선(10만원)으로 폭락했을 때는 더딘 움직임이었으나 최근 금융실명제와 맞물린 물가잡기 운동은 신속히 진행되므로 양측가들이 추석기대에 개의치 말고 속속 출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실정이다.

## 2. 호경기 언제까지나

8월에 계속하여 호경기를 보이고 있는 양돈경기가 좀체로 내려설 줄 모르고 있다. 수입 쇠고기의 대량방출로서 물가 조정을 해보려 하지만, 수입육의 선호도가 매우 나쁘게 얘기되고 있는 반면, 돈육을 찾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년의 형태를 본다면 <표 1>과 같이 추석 이후는 계속 하락하다가 연말연시의 신·구정대목에 조금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올해는 별난 해이므로 5월의 예상외 불황과 같이 금년 기후와 같이 앞으로 또다른 양상이 전개될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두수 통계도 의구심이 가는 것은 <표 2>에서 보듯이 같은 기간의 '92년과 '93년을 대비해 볼 때 두수증가에 비하여 사료생산량은 '92년 7월이나 '93년 7월이나 마찬가지로란 점이다. 양자중 사료생산량이 통계수치의 신뢰

〈표 1〉 최근 ('90~'92년) 월별 동향 및 '93 예상치



\* 두수는 서울 3개 시장 하루 물량임. 점선은 예상치

〈표 2〉 두수통계와 사료생산량

	두 수(천두)	사료생산량(천톤)
'92년 6월	5,273	(7월) 349
'93년 3월	5,168	(4월) 332
'93년 6월	5,588	(7월) 350
'92년 대비	(+) 6%	±0

도가 더 높기 때문에 사육두수는 '92년 6월과 같은(5,273천두)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모돈이 늘어났고 생산을 많이 했다 하여도 질병 손실이 그만큼 클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되며, 지난 겨울의 TGE건도 그후로 소문에 2, 3, 4월 연속 된 곳이 많았다는 말도 들었다.

### 3. 당분간 호경기 지속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등 신경제 추진에 따른 미묘한 먹거리 향상과 중추절이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므로 기대심리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어질 것인 즉, 출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따른 매물부족 현상은 그리 쉽사리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지난 겨울철의 자돈 폐사가 많았던 것의 초점을 '92년 12월과 '93년 1, 2월로 보았을 때 '93년 5, 6, 7월의 매물감소로 인한 호경기를 말 하였던 것인데 지난 겨울의 자돈질병이 그 이후까지 이어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표 3〉은 서울 지역의 경락두수를 나타낸 것인 바, 6, 7, 8월은 6, 000두를 넘지 못하고 있으니 지방도축량의 증가라고만 볼 수 없는 물량감소를 여실히 보이고 있음을 뜻하게 된다.

### 4. 추석대목 기대 어려워

물가 정책당국의 돼지가격 안정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전개될지 모르나 계속하여 상승

〈표 3〉 서울지역 유통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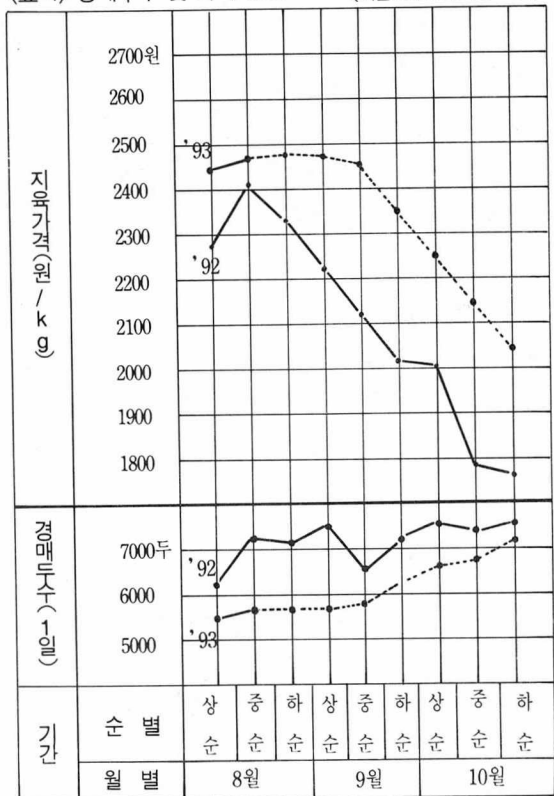
(1일 평균 경락 두수(두))

구분	'928	9	12	'931	2	3	4	5	6	7	8.17
경락두수	6,885	7,154	7,559	7,109	6,220	6,298	6,295	6,430	5,734	5,828	5,634
지방육반입두수	1,466	1,545	1,524	1,651	1,429	1,546	1,582	1,535	1,498	1,271	1,080
비축육방출두수	-	-	-	-	-	-	-	-	-	241	-
계	8,351	8,699	9,083	8,760	7,649	7,844	7,877	7,965	7,232	7,340	6,714

- 서울지역 3개 도매시장 경락두수는 6~7천두를 유지하였으나 금년 6~7월들어 5천두 수준으로 감소
- 서울지역 총 유통량은 작년에는 8천두 이상 유지하였으나 금년 2월 이후 7천두 수준으로 감소

“  
 수입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금융실명제 등 신경제 추진에 따른  
 미묘한 먹거리 향상과 중추절이란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므로 기대심리에 의한 가격형성이 이어질  
 것인 즉, 출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따른 매물부족  
 현상은 그리 쉽사리 하락되지 않도록 만들  
 것으로 보여진다.  
 ”

〈표 4〉 경매두수 및 가격 동향 (서울 3개 도매시장 기준)



일로 출현된다면 기필코 수입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1개월간도 만류하여 참아왔는데, 그리고 출하 독려도 해보았는데, 앞으로 일주간의 양상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필자의 농심은 90kg이 안되도 좋으니 출하시켜 수입을 막아 놓아야 하겠는데, 피해의식에 잡혀 있는 농민의 심리는 동떨어진 감도 든다. 요즈음은 국내 시세가 좋으니 수출 장려금도 별로 제역할을 못하여 수출업체들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눈치다. '93년6월 두수통계로 볼때 모두가 지난 3월에 비하여 5만두 이상 증가하였음을 보는데, 이는 대규모 전업양축가의 시설자동화와 시설개선에 따른 경제단위 사육모양세를 갖추는데서 야기되는 현상으로 보아야 하겠다.

'94년에 냉장돈육이 수입개방되겠지만 양돈농민이 그것 말고 다른 작목을 찾을 수도 없거니와, 그래도 양돈이 국제경쟁력이 있다고들 하니 어차피 용자 받아서 시설지원 해주는데, 죽게 하겠느냐는 막연한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다. 향후 10월까지의 경기전망은 〈표 4〉를 참조하기 바란다.